

연금제도를 활용한 목회자의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연구 : 나사렛성결회교단 사례를 중심으로

황인태 협성대 교수
오근혜 협성대 객원교수

우리나라는 압축고령화라 불릴 정도로 노인인구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OECD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후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후준비제도가 미흡한 개신교 목회자들의 노후준비가 가장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나사렛성결회 소속 목회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한 노후준비를 위해서 종교인소득과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국민연금 개혁을 통한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 임의가입형태의 가입방안 및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으로 목회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적절한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는 결국 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나 납부할 보험료 부담에 따른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눔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의 최소한의 노후준비를 위한 상생방안이 필요하며, 종교인소득과세제도 활용 및 임의가입자로 가입하는 방법 또한 목회자 스스로 실행가능한 방안이 아니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결국 재정적 여력이 있는 도시의 대형교회나 교단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노후준비, 연금제도,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